

## 2023.11.05.(주일) 민수기30:1-16 「삼박자」 장충만 목사님(세종중문교회)

- |  |   |
|--|---|
| <p>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니라</p> <p>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p> <p>3.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p> <p>4.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p> <p>5.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p> <p>6.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p> <p>7.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p> <p>8.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p> | <p>9.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p> <p>10.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p> <p>11.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p> <p>12.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p> <p>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p> <p>14.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p> <p>15.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p> <p>16.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p> |
|--|---|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 중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충만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그런 역사의 현장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이고, 또 제 삶에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는 19년차 아주 열정이 충만한 장충만 목사입니다.

제가 19년 사역하면서 정말 아직까지는 한순간도 그냥 좀 대충대충 이렇게 그냥 쉽게 사역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1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두 번의 큰 회의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육부 사역에 대한 회의였는데요. 제가 군대를 갓 전역하고 2005년도에 여기 가까운 잠실본동에 있는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저는 교육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진짜

교육부 사역의 진심이었어요. 진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고, 또 직장을 취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원래 다 그런다고.. 원래 교육부 한 번 다 떠났다가 나중에 삶에 좀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근데 저는 사실 나중에 떠나고 돌아오기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아이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었는데...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비정상인 것처럼 --;; 그래서 우리 아이를 다 떠났죠. 여튼 아무튼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취직하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목숨을 걸어도 안 될 일은 굳이 내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교육부 사역에 큰 회의를 느꼈을 때 이제 그때에 다시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도, 그리고 직장에 취직해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나면 바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치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One message로 같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제가 2017년도 세종시에서 지하실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물론 장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예배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교육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지 예배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좀 명문 있는 뼈대 있는 유치부를 졸업하신 분들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장충만 눈 감아!! 눈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이지 그것을 교육화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와 신앙 교육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신앙 교육을 하는. 그래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저의 이제 사역의 큰 한 회의를 해결하게 되죠.

두 번째 회의는 무엇이나면 바로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에 대한 회의였어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너무 다른 모습이 많은 거예요. 특히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많고, 또 그것들이 ‘원래부터’ 그랬다면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질문이었어요. 원래 그랬대요. ‘도대체 원래는 언젠가?’ 몇 년이고... 아니 도대체 좀 근거를 달라고 해도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을 하고 보니까 또 젊은 목사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갈등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큰 회의가 들었었을 때 이제 그때 우리들교회 사역을 그때 접하게 되고 그때 사역에 대한 그 회의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김양재 목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전을 갔죠. 그래서 호텔에서 목사님 모시고 교회로 이동하는데 저는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원래 사실 제가 담당은 아닌데 갑자기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오는데 미국이랑 한국은 시차가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이 좀 빠르고 미국이 느려요. 그래서 주일 아침 일찍 오는데 여기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차를 타시면서 핸드폰을 계속 보시면서 웃고 계세요. 저도 알거든요. 그게 유튜브 동영상인지 예배인지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처음 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성도와 또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정말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목회 현장을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보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마음을 좀 가졌고.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또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종시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두 번째 그 큰 회의가 왔어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왜 이렇게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것이고, 도대체 한국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을 해야 과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들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물어보면 “당신의 신앙생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당신과 같은 제자를 많이 낳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휴~ 저는 부족해가지고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의가 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몇 백 년은 더 다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궁금하고~ 막 너무나 달콤하고~ 막 저기 막 신비롭대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보고 싶대요. 그래서 강해설교를 해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면 그럼 다 주무셔요. 그래서 ‘아휴 이걸 아니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또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 개관한다고 하면 갑자기 딱 그때만 바쁘세요. ‘막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공부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어휴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돼서 성경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옆에 계신 분은 “어휴 저는 10년 되었지만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시군요. 잘

오셨어요.) 옆에 “어휴 저는 권사인데 성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한국 교회는 몇 백 년을 다녀야 말씀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회의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들교회 소문이 다시 그때 제 마음속에 들린 거예요. ‘이 교회는 목장 모임을 저녁 7시에 시작하면 새벽 1시에 끝난다더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이 잘 되어 있다더라~’ 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이렇게 큰데~ 개중에 많은 목장 중에 뭐 한두 개 좋은 샘플과 목사님 늘 간증하실 때 있을 수 있겠죠. 저희 교회도 그런 목장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냥 한두 개의 좋은 샘플인 줄 알고 또 의심이 충만이잖아요. 의심 장씨에 충만. 아무튼 의심이 충만해서 부탁을 했어요. 제가 누구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저는 우리들교회에 가서 사역을 좀 탐방하고 싶은데 교회, 주일 이런 거 말고 목장 모임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장 모임을 갔어요. 딱 갔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맛있는 밥을 주시더니~ 갑자기 부부 싸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목사잖아요.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 안과 집 밖의 모든 사역은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집 부부 싸움 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막 지금 두 분이 얼굴이 진짜 울그락불그락하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권찬님이 옆에서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잘못하셨네요. 빨리 회개하시고...” 막 점점점 한쪽은 열받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읽었던 책과 들었던 간증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새벽 1시에 돌아와서 또 우리 아침 5시에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 싶어서 목사님께 다시 부탁을 했죠. 다른 목장 소개해달라고. 왜냐면 한 번 봤잖아요. 뭐 그런 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목장을 소개받아서 다른 장소에 가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맛있는 밥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평생 내가 죽을 죄인으로 제가 저 구석에 묻어두었던 그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막 용기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내 죄는 죄도 아니구나. 내 죄 내가 평생 목사로서 평생 감춰두었던 이거 그냥 말해도 그냥 그냥 묻히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가서 막 죄 고백하고 그때도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 거기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욕탕 세미나를 한다~” 목욕탕 세미나는 뭐냐? 가서 이렇게 우리 영적인 때를 다 벗기는 곳이다. 그럼 나 그거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욕탕 세미나를 오고 그곳에서 알았어요. “땡크 양육이라는 게 있다!” 그러냐 땡크 양육을 한번 하자. 그래서 저도 우리들교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처음 보고, 여러분들도 저 처음 보시죠? 근데 올 때마다 왜 이렇게 좀 편한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환경이 달라지면 막 떨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편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게 된 것이죠. 어깨 너머로. 우리는 한 번도 이 교회의 모습이나 사역. 그리고 저희는 완성된 교회의 그 완성된 모습을 봤지만 저희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러한 목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런 과정이 ‘오늘날 우리들교회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가 늘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또 모든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막 이런 거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두 번째 회의에 답을 얻었어요! 그때 2019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2019년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사역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취미 활동 없어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 의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사역자가 그렇게 많으면 목회자 축구팀 없어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맨날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말씀 나누대요. 그래서 “아니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또 뭐 없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 교회의 목장 모임은 목장 모임 하면 그냥 예배는 10분이면 끝나고 그다음에 나라와 정치 경제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오가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또 모이면 뭐해요?” 없대요~~. ★그냥 무조건 2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말씀하고 큐티하고 적용 질문하고 그거 한다는 것이예요. ‘정말 성경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곳일세!’ 막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배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딱 그때에 제 사역에 큰 회의를 겪었을 때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죠. 우리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한 지 정확히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예요.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2년 후에 영구 비전을 하나 정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가 되자. 그게 저희 교회의 영구 비전이 됐거든요. 개척한 지 2년 동안. 왜냐면 그 갈등과 그 큰 회의 속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를 하자!”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의 일기를 기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하자. ‘그럼 그러한 교회가 뭐가?’라는 질문에 개척한 지 2년 반이 되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서울하고 판교에는 우리들교회가 있으니 우리는 세종시의 도파성 교회가 되자. 그래가

지고 저는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도피성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니 알긴 알았어요. 그냥 뭐 어디 뭐 성 하나 있겠지 뭐~ 근데 정확히 그 도피성의 기능과 역할과 그 사명과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들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린 세종시의 도피성 교회가 되자!!” 그래가지고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종시의 도피성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의 반응이 “아멘~!!” 절대 그렇지 않고요.--;; 딱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아휴,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세종시의 모든 아픔을 다 우리가 받아낼 일이 있냐고!!”

사실 제가 그러한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저희가 2017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방인 도시 세종시가 전국 자살률 1위로 증가했어요.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모든 것들이 화려해 보였는데 정말 이방인 도시이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고, 새로운 시작점으로 맞으시는 분들 모든 신분과 모든 사연들을 다 감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곳. 또한 누구 하나, 어떠한 공동체 하나 없고, 마음을 나눌 곳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삶을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도시가 작다 보니까 누구 한 다리 건너 누구 누구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죠. ‘과연 교회들은 무엇을 했는가? 과연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이고, 그러한 곳은 어디인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320~330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내가 매일매일 죽을까 말까를- 그 생명을 삶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것인데 과연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어느덧 교회도 내 안의 상처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깨끗한 옷을- 깨끗한 포장지를- 싸고 가야지만 환영을 받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진짜 아픈 곳은... 나의 진짜 상처를 나누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곳. 때로는 내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목장이든, 셸이든 그런 모임을 해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의 진짜 아픈 곳, 너무너무 아픈 상처를 딱 나누면, 그때는 은혜스럽게 잘 들어요. 근데 그다음에 교회를 찾아갔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해요. “어휴, 저 사람 옛날에 그랬대. 저런 과거가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새로운 포장지를 감싸서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예쁜 포장지 건강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는 많지만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든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다. 판교와 서울은 너무 멀다. 우리가 세종시의 도피성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절반은 아무튼 “아휴, 지금도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제발 그거 하지 말자고” 나머지 절반은 “예, 맞습니다. 목사님 뜻이 너무 좋네요. 정말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피성 교회가 뭘니까?” 저도 잘 모르는 걸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 “있습니다! 좋은 샘플이 있습니다.” 진짜 도피성 교회가 뭘지. 사람들은 그 방향을 제

시해줘야 그 길로 가는데..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들교회 와서 은혜받은 건 저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거든요. 목회의 회의를 느낀 건 저지 우리 성도님들은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도피성 교회를 선포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갖춰져야 할 것도 많고 ..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 제가 이게 주제가 아니어서 지금 본문 말씀 읽지도 못해가지고 정말 간증이 많은데 못다 나눈 이야기는 언젠간 또 기회가 있겠죠.)

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제 두 번째 사역-그러니까 19년 사역의 두 번째 의- 답을 얻었어요. 오늘도 우리 세종시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한 5년쯤 그 도피성 교회를 외치다 보니 5년쯤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 우리가 그런 도피성 교회구나.” 그리고 5년쯤 되니까 많은 분들이 도피성 교회인지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은혜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다섯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다 원색이에요. 막 얼마나 성격 캐릭터들이 다 강하신지..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죠. “이게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감춰서 다 색깔이 이렇게 섞이는 거지 집에 가면 다 원색이 드러납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5년밖에 되지 않아서 갈 길이 멀지만 아무튼 우리들교회에서 먼저 우리의 앞선 교회가 됐고.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한 저희도 세종시에서 정말 그 중부권 지역에서 정말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삶의 애환의 도피처가 되어 우리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터이니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2023년도에도 함께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수) 아이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박수 받았으니까 지금 딱 좋잖아요.^.^;;

우리는 지난 9월부터 **민수기**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 백성 민(民)의 가닥, 셀 수(數)자를 쓰죠. 그래서 ‘민족의 수효를 세는 책’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지요. 영어로는 넘버스(숫자)죠. 그 넘버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역시 우리들교회는 다르군요. 예 우리 민수기의 히브리어 원어는 [베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은 숫자와는 전혀 관련없는 뜻이죠. 바로 “광야에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추억을 담고 있는데 민수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광야의 출발 2년과 마지막 2년- 가나안 도착 전의 2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아주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시작되거들랑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의 광야길의 출발과 마지막은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길의 시작과 마지

막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며, 그리고 광야길 이후에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도착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인생의 광야길을 혹시 막 시작하셨습니까? 혹은 내 인생의 광야길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민수기를 펴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0장**이에요. **서원과 서약에 대한 관한 명령**이죠.

그런데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의 등장인물은- 그러니까 그 서약과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무엇이나면- ①서원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②서원을 받는 분(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③그 서원을 허락해 주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는 나뉘볼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매우 연약한 자들의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린 여자들의 서원,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새 신부-이제 갓 시집을 가는 그 새 신부-에 대한 서원,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과부와 이혼 당한 자들의 서원. 이제 그들의 서원이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가정의 가장의 허락 여부에 의해서 서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원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말 힘없고 약한 자들의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누구도 이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서원과, 이들의 바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일평생 나의 서원과 원함에 대해서 누구도 주의 깊게 들어본 적 없고,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그 베미드바르-에서 30장에 와 보니 그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서원과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약한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그 남자-의 허락, 가장의 동의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래요 어떠한 서원과 결심 서약들도 그의 아버지, 또는 그의 남편. 즉, 그 가장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서원이 지켜지게 될 수도 있고, 무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자와 서원을 받는 하나님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열쇠는 가장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서원하는 자와 서원을 받는 하나님 그 둘의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가장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진짜 큰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에게 열쇠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루어질 서원이 팍팍 줄지 않겠습니까?

“여보, 이번에 부흥회가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또 교회 가려고” 또 “여보 이번 겨울에 아웃리치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보 정말 이 사람 되게 불쌍하지 않아?” “야! 아직도 모르겠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여보...” “안 돼!!”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나의 서원을 이루기 위한 열쇠를 가장에게 주셨냐고요? 사실 그 열쇠를 여자들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열쇠를 가장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손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서는 여자들의 서원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의 서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자들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 없는 남편들이 점점 소외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서원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가정이 서고, 가장이 세워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여자와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 그 서원의 열쇠가 되는 그 가장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될 때에야 그 서원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 계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 그 26장과 27장은 그 인구 두 번째. 두 번 다음 세대의 인구 계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기업을 분배해줍니다. 기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28장과 29장에 그 새로운 땅에 그 분배된 기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 인지를 가리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 매일 드려야 할 예배, 매일의 제사, 상번제, 두 번의 상번제, 매주 드려야 할 제사, 매월 드려야 할 제사.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잖아요. 알람. 그죠? 그리고 유월절의 알람, 무교절의 알람. 그다음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러한 알람들을 설정해 주셔서 이 한 해를 우리가 바쁘게 지나면서 그런 알람이 올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29장까지 그렇게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0장에 이 여자들

의 서원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 36장이면 끝나요. 아니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갑자기 예배, 제사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드러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주시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 여인들의 서원 이야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의 패턴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뭔가 비슷한 - 이와는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보여져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간이 선악과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범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요. 서로 믿고 의지했던 그 서로의 관계에 의심이 들어가고요.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 보이니까 서로를 감추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열받는다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 3장에 그런 죄가 들어갔는데 가정이 깨졌는데... 4장에 보니까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제사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무엇인가 열쇠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회복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의 열매는 우리의 가정에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가족원들의 서원이 그 가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회복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 1. 하나님-가장-가족. 이 삼박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13절)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모든 가족원들의 그러한 서약의 모든 책임은 그 가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요.

저는 우리들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저는 올 때마다 저는 새로운 저의 죄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처음에 목욕탕 세미나 왔을 때 발견한 저의 죄패는 ‘자기 의’라는 죄패였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이고, 그리고 신학생에, 유학까지 다녀온...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아직 이러한 모습인데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야말로 ‘기독교 풀옵션’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감정을 감추고 숨기고 바꾸어서 적당히 은혜스러

운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정말 ‘자기 의’에 충만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 저는 공식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얼굴에 철판은 점점 두꺼워지게 되어 있지요. 목세를 마치고 핑크 양육을 하면서 저는 그 10주 동안 그때는 10주를 했거든요. 지금 5주를 하지만. 그때 10주 동안 매주매주 저는 제가 제 얼굴에 있던 그 철판을 계속 벗기는 자기 의에 대해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들교회를 다시 찾았을 때는 저 자신이 너무 막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잘 하는 척... 정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모든 척을 하는 “척척 목사”라고 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저의 삶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저는 **다섯 식구를 지키는 가장으로서 저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저의 서원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은요, 온통 하나님을 위한 서원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서원은 정말 정직히 말하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반쪽짜리 하나님만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볼게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한 서원, 모든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서원은 없어요. 항상 사역하고 항상 사역에 힘쓰며 그러한 목사라고 생각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맨날 집에 집안일만 돌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은데^.^;; 본문 말씀은요 아니라고 말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당신의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요, 저는 지난 19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했거든요. 정말 많은 간증들, 경험들 제가 막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로서 그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서원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요. “그냥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저의 답이에요.

저는 극심한 일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웃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분명히 저는 저희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다른 집에 산 적이 없는데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tv나 강단이나 그럴 때 모습을 많이 보았죠. 항상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사역지로 떠나셨고, 그리고 잠들면 돌아오셨습니다. 항상 사역하시느라 평생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오롯이 우리 가족 4명만 오롯이 갔던 가족 여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적은 있어요. 아버지가 부흥회를 가시면 어디 조금 여행지와 비스무리한 부흥지에 가시면 그럼 우리가 가족이 따라가요. 그것이 가족 여행이다. 그럼 가면 가족들이 왔으면 가족들과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덕에 너희들이 여기 왔으니 나는 여기서

말씀을 볼 테니 너희는 다녀와라.”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라났지요. 나름 저는 유치원도 나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입학했는데 저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아버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그러한 중학생 때 저는 아버지와 대화 일주일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얼굴도 못 보는데 무슨 대화입니까? 딱 한마디. 매주 주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매주 주일 아침에 진수성찬을 차리세요. “충만아, 아버지 식사하시라고 해라” 그래요. 그럼 가요.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똑 똑 똑”하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막 떨림과 불안함이...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배에 힘을 뺏 주고요. 문 열고 똑똑똑 “아버지, 식사하세요.” 문 닫고 그 끝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냥 앉아서 정말 밥만 먹습니다. 어떤 대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마디 그거였어요. 그때 다짐을 했죠. 저는 평생 ‘나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일 중독자가 되지 말아야지 집안일을 좀 돕고,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고, 결혼을 하여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평생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집안일도 좀 돕고, 자녀들과 가끔 여행도 가고, 대화도 잘하고, 잘 놀아주는 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는 늘 사역의 시간을 가정에게 뺏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역 생각. 여행을 가긴 가요. 왜냐면 다짐했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그럼 여행 가서 항상 사역 전화하고 상담하고, 대화할 때도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항상 사역만 생각하는 그런 **사역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리라’ 다짐했던 터라 저 나름대로 집안일도 돕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난 아버지와 달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저의 아내에 대해서는 “넌 감사한 줄 알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엄청 많은데^^) 저희 집안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칭찬해요. “야, 너 충만이 와이프는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만 살아보셨으니까. 조금이라도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것이죠. 제가 대학원 때 파트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보스턴 북부 지역에 있었고, 제가 사역했던 곳은 뉴욕이고,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뉴욕의 롱아일랜드라고 뉴욕에서 한 30분 들어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과 제가 다녔던 학교는 편도 400km였어요. 3년 동안 파트타임 전도사가 3년 동안 그 편도 400km의 거리를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3년 동안 운전을 얼마큼 했나 봤더니 20만km 운전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4만km예요. 3년 동안 그 파트타임 전도사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근데 이것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제가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맨날 무리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몸에 이런저런 이상 사인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제가 우리들교회에서 예비 목자 예목. 저랑 같이 수업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예목 수업 들을 때 그때 또 한 번의 이상 징

후가 왔어요. 너무 잠을 안 자고 맨날 일만 하니까 머리에 필름이 이렇게 말하면 다음 것이 생각나고 다음 것이 생각해서 말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뇌에 어떠한 이상이 왔는지 말을 할 때 필름이 푹푹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다음 말이 생각나고 그다음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노력해서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상 징후가 올 때 ‘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열심히 사역했구나.’--;; 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정신 없는 사역자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가족원들의 서원을 위해서 가정은 그것을 지키게도 해야 하고, 그것을 무효하게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가정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저는 그 가족원들을 돌아보지도 못한 채 나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서원을 가족과 분리된 하나님에게만 두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평생 사역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주 평범한 평신도 가정에서 항상 가정이 우선이고, 딸의 부탁이라면 정말 과일을 깎아서 잘라서 입에 넣어주었던 사랑을 받았던 우리 와이프는 늘 외로움을 호소했죠. 그런 와이프가 저는 제 사역의 걸림돌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하는데 내 아내는 늘 방해가 되는구나. 내 아이들은 늘 나의 더 열심히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낼을 늘 아까워하면서 가정에서도 항상 사역에 대한 고민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꺼냈어요. 정작 저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틈이 없었던 것이죠. 제 아내 마음속에 담겨진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우리 결혼생활 한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준 적도 없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냥 저는 제 사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못 꺼낸 이유는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은 문드러지고 썩고 썩아서 결국 터지게 되었죠. 하루는 저와 와이프와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답답한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제발 내 얘기 좀 들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냐고? 지금 네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참다 못해서 앞에 있는 접시를 집어던져 깨뜨렸어요. 보통 그러면 억!! 빠뻔!! 하면서 우리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는 19년차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수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정말 그럴 때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

사명자의 그런 막 불타는 열정이 올라와서 정말 담대함이 솟아나가지고요. 저는 그러한 상황을 처음 맞았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주워담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제 갈때까지 갔구나. 야, 거기 있는 유리 다 깨어도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접시를 던졌을까?’라는 현실이 제게는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결국 저희 둘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앞집에는 목사님 부부가 사십니다. 진짜 놀라워요.^.^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 어디 교회 다니니?” “저희 아빠 목사인데..” “나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앞집에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앞집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희 가정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자신의 날개를 꺾고 오셨네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미국에서 14년 유학을 하고 미국의 치과 의사예요. 근데 치과 의사가 되고 이제 저랑 막 결혼하고 의사로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세요. 그래서 모든 미국 유학생할 접고, 영주권 신청 다 접고, 그냥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신혼 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따라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 11년째 3명의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개척 교회 목사 사모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 자신의 날개를 꺾고 오셨네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가정의 가장이시네요. 그러면 사모님을 업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 되게 자주 들었어요. 정말 수십 수백 번 저희 와이프가 답답할 때마다 그래도 “당신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잖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에 질세라 “야, 나도 이거 하기 싫어. 나 힘들어서 입술 다 터지고 맨날 막 병원 가는 거 몰라?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명이라 사는 거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울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그 얘기냐고. 그만 좀 하라고 내가 다 안다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가장이 되어서 옆을 보니까 굶아 터진 아내가 있고, 제가 가장이 되어서 아래를 보니까 아빠만 바라보는 그 3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나님 일 한다고 가정의 어떠한 서원과 어떠한 그러한 소원에 대한 것을 하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된 사역 중독자임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서원과 결심과 서약이 있더라도 모든 서약은 그의 가장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가족원들의 서원을 지키게 하도록 돕는 자가 가장이더라고요. 가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잘

못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원하는 서원자와, 그리고 가장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과 그 열매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서원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서원하셨습니까? 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서원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 Q.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서원하십니까?

이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있지만 언젠가 또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구하고,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한 영혼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알아

내 모든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알아  
내 모든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알아  
내 모든뜻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알아  
내 모든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삶 당신의 삶 되기를 ♫

**기도제목**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나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가족의 영적인 가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내가 이 가정에 믿음 없고 상처받은 가정을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나의 가족을 죽여가고 있는 그 죄인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성경 모든 곳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모습 속에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고 변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통하여 세우길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등한시 여기고 우리가 그 가정을 팽개쳐내는 사역 중독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가족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리가 그들을 세워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릴 때에 정말 예배는 ‘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 우리가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고, 오늘 정말 삼박자 서원을 잘해야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 **[요약]2023.11.05.(주일) 민수기30:1-16 「삼박자」 장총만 목사님(세종중문교회)**

서약과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서원을 하는 사람과 ②서원을 받는 분(하나님) 그리고 ③그 서원을 허락해 주는 사람(가장)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매우 연약한 여자들의 서원-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서원하는 자와 서원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열쇠가 가장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손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서원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더 큰 계획). 여자들의 서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여자들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 없는 남편들이 점점 소외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서원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가정이 서고, 가장이 세워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여자와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 그 서원의 열쇠가 되는 그 가장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될 때에야 그 서원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의 열매는 우리의 가정에서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 **하나님-가장-가족. 이 삼박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13절)**

13.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예배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가족원들의 서원을 위해서 가장은 그것을 지키게도 해야 하고, 그것을 무효하게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가장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예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가족원들의 서원을 지키게 하도록 돕는 자가 가장이더라고요. 가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잘못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원자와, 그리고 가장 이 삼박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과 그 열매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Q.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 무엇을 서원하십니까?**